



## 제 8차 대학교육 정책 포럼

## ‘학부제의 성과와 개선 방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9월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학부제의 성과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제 8차 대학교육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연세대학교와 EBS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 포럼에서는 지난 5~6년 동안 대학 사회에서 시행되어 온 학부제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알아보고, 학부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 1 : 학부제의 운영 현황과 성과**

이날 첫 번째 주제인 “학부제의 운영 현황과 성과”에 대해 주제 발표를 맡은 강남대 윤신일 총장은 학부제의 도입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학부제 도입 현황을 계열별로 제시했다. 또한 윤 총장은 학부제의 가장 큰 성과로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를 지적하면서 소질과 적성에 맞는 폭 넓은 전공 선택 기회 제공, 학제간 교육과 연구의 활성화 자극, 대학 자원의 공동 활동을 통한 제정의 효율성 증대, 교수들의 수업 준비 태도 변화 등도 부분적으로 가시화 된 성과로 지적하였다. 반면 특정 전공으로의 쏠림 현상과 학생들의 소속감 결여에 따른 학생지도의 어려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론을 맡은 연세대 주인기 교수는 연세대의 학부제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학부제 추진에 따른 대학교육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숙명여대 김광웅 교수는 학부제 도입으로 학생들에게 자유와 책임이 강조되고, 학문적 개방과 교류가 확대되면서 대학 교육 환경 체제가 바뀌었음을 지적한 반면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 엄상현 과장은 학부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에서 특히 기초 학문 위기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했다. 대교협 강희돈 책임연구원은 대학이 학부제 도입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나타난 부작용과 학생들이 학부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와 상담도 부족했으며, 그 동안 전공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태도였음을 지적했다.

**주제 2 : 학부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다음으로 “학부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았던 부산대 정진농 교수



는 그 동안 학부제가 논의되면서 지적되어 온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면서 학부제는 그 취지나 목적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그것을 시행하는 절차나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그 결과에도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학부제의 개선 방향으로 획일적 방법보다는 대학의 자율성을 전제로 한 대학의 독자적 정체성을 인정하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변해야 하고, 대학에서도 학부제를 시행하는 집행과정이 민주적·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구성원들도 자기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론을 맡은 서울대 백종현 교수는 학부제의 부작용으로 언급되고 있는 기초학문 분야 위축이나 전공 심화도의 저하 및 대학교육 부실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면서 학부제에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장동식 교수는 고려대 공과대학 현황을 제시하고, 학부제의 어려움 중에 하나인 전공 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남대 송진 교수는 학부제가 지향했던 목표의 효용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대학이 처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부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부제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대학의 자율권 부여, 부분적인 학과제로의 환원 허용, 전공 선택의 다양화 확대 등을 제시했다. 대교협 김규환 책임연구원은 학부제가 학생의 학습권 확대에는 상당한 기여를 했으나 대학의 특성화와 전문성 제고, 학문간 교류와 학제간 연구의 활성화에는 거의 진전이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학부제 시행의 자율성 확보와 정부의 행·재정 지원을 강화해야만 학부제가 효과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의 총장, 교무·기획 관계 처장 및 실무 담당자와 대학의 학부제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정책 포럼은 학부제 실시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점검해 보았고, 우리 대학의 현실에 맞는 학부제 추진 방향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김영호**